보건복지부 기획사업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기획사업으로 비장애 아동들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장애 이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동화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제작된 동화책은 기성작가가 동화원고를 집필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을 확산, 관심을 유도하고자 올해는 아마추어, 기성 작가 상관없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동화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로, 많은 시민들이 응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권교육과 아동정서에 부합하는 작품 세 편 대상〈소곤소곤 화단에서 생긴 일〉, 우수상〈해담이한테 말 걸기〉, 장려상〈푸른사막〉이 선정되었습니다.

| 연구소가 펴낸 동화 · 그림책들 |

· 소곤소곤 화단에서 생긴 일
· 함께 부르는 정글음악대
· 별이 빛나는 이유
· 내 이름은 동그라미
· 나도 달린다
· 내 마음의 눈
· 한이와 함께 춤을
· 잠자리야 힘을 내!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
· 우리 서로 친구해요



※ 동화책 관련 문의 : cowalk1004@hanmail.net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7(망원동 377-1) 마포로알프라자 8층
전화:02)2675-5364 | 팩스:02)2675-8675 | http://www.cowalk.or.kr

인권은 무엇일까요?

– 권리란 나의 행복을 요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 인권은 자유롭고, 공평하게 살 권리입니다.
–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 인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 인권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 인권은 약자와 소수자에 의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 인권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 인권은 상호의존적입니다.
– 인권은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교육은 왜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특성과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과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배제되고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권교육은 다양한 능력과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나아가 나의 인권, 친구의 인권, 어른,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 등을 확인하고 사람마다 고유한 존엄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로 간에 우애를 나누는 방법,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 연대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특히 장애인권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는 교육이며, 사회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장애'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모든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침해 상담전화 및 인권교육 문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독서 지도안





푸른 사막

읽기 전

1. 제목과 책 속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본 후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2. 평소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읽은 후

1. 상상한 내용들이 맞았나 서로 나누어 보고 등장 인물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2. 이야기를 다 읽고 난 후의 기분과 느낌은 어떤지 나누어 봅니다.
3.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책 속으로

1. 수정이가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푸른사막'이야기에서 큰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작은 나무들은 점점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점점 죽어가는 작은 나무들은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을까요?
4. 다시 작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엄마가 '푸른사막'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만약 정우와 같이 신문 만들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책을 넘어서

1. 현재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같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해봅니다.
2. 같은 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장점을 각자 하나씩 이야기 해봅니다.

그 외 활동

조를 구성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학급신문 만들기. 혹은 같은 주제로 창작동화 만들기.
–아동들이 위 두 가지 중 자신이 선호하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담이한테 말걸기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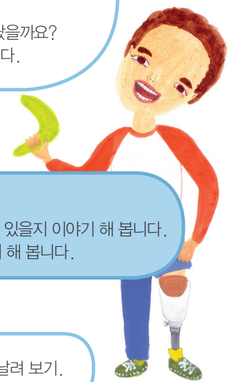
1. 제목과 책 속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본 후 서로 이야기 해 봅니다.
2. 형이나 누나, 동생이 있다면 형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봅니다. 형제들의 모습, 성격, 취미 등을 이야기 해 봅니다.

읽은 후

1. 상상한 내용들이 맞았나 서로 나누어 보고 등장 인물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2. 이야기를 다 읽고 난 후의 기분과 느낌은 어떤지 나누어 봅니다.
3.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책 속으로

1. 해담이와 진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이가 해담이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진이가 해담이를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해담이가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해담이가 부메랑을 진이 앞에서 날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5. 만약 해담이와 진이 사이가 계속 어색하고 불편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6. 만약 내가 진이라면 해담이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서로 이야기 해 봅니다.



책을 넘어서

1. 주위에 친척이나 친구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이야기 해 봅니다.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3.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 활동을 한 가지 이상 이야기 해 봅니다.

그 외 활동

부메랑이나 종이비행기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적어서 날려 보기.

소곤소곤 화단에서 생긴 일



읽기 전

1. 제목과 책 속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본 후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2. 주로 '화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생각한 후 자유롭게 이야기 해 봅니다.

읽은 후

1. 상상한 내용들이 맞았나 서로 나누어 보고 등장 인물에 대해 설명해 봅니다.
2. 이야기를 다 읽고 난 후의 기분과 느낌은 어떤지 나누어 봅니다.
3.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니다.

책 속으로

1. 짜증이 날 때 내가 아파트 단지 옆 화단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개나리반 아영이가 화단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내가 한 달이 넘게 화단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일회용 접시 푯말에 적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5. 왜 나는 푯말에 적힌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6. 만약 아영이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 내가 일회용 접시 푯말에 적힌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책을 넘어서

1. 주위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2. 만약 내가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3. 만약 내가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 외 활동

친구 이름이 적힌 팻말에 하고 싶은 말 적기.
–칠판에 큰 전지를 마련한다.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전지에 붙인다.
–짝수번호가 홀수번호의 번호를 뽑아 해당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욕설이나 비판이 아닌 칭찬 혹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